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호 [루계 제23348호] 주제 100 (2011)년 1월 31일 (월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여나가자!

##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합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합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합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꽈범기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합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류현식동지를 비롯한 도와 합흥시의 중요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아버지 장군님을 또다시 맞이한 공업도시 합흥시는 이날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올해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멀쳐나선 합흥시의 로동계급은 당의 옹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 길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 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결사판철할 일념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리며 쟁쟁하게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기업소의 주원료인 카바이드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날론섬유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밀폐식전기로에 의한 카바이드생산공정과 수평방사에 의한 비날론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루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망계획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수직방사직장, 견절작업반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과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



이 비날론폭포를 솔아내여 온 나라에 대결사를 안아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비날론생산의 정상화와 비날론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 있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방사기들과 견절, 견조기들에서 쉬임없이 훌러나오는 흰눈같이 하얗고 명주처럼 부드러운 비날론띠섬유와 비날론솜을 기쁨에 넘쳐 바라보시며 비날론솜의 질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비날론로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현신

적복무정신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정성을 다해 비날론을 견절하고 있는 리영숙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을 만나시여 담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질 좋은 옷감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소의 로동계급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기업소에서 생산한 식초, 장판니스, 물감, 농약, 비닐판, 비날론바줄 등 수십 가지의 제품들을 보시고 그 질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를

비롯한 혁명의 간고한 시기에 오직 혁명의 력의만을 생각하며 전심전력을 다한 참된 애국자들이였다고 하시면서 빈터에서 인민의 땀을 일떠세우던 그날의 그 정신으로 언제나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기업소이므로 그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대상건설과 과학기술개조사업을 계속 힘 있게 내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에서 툰튼히 축성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비날론중간체로부터 여러가지 화학제

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당면하여 밀폐식전기로에 의한 카바이드생산공정과 수평방사에 의한 비날론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그 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대주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과 뜨겁게 깃들어 있는 혁사적인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증진투쟁을 힘 있게 벌립으로써 우리나라 주체공업의 본보기 공장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룸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모든 것을 인민생활향상에 따른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펴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통성의 로동계급은 련일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통성의 로동계급은 여러차례 기업소에 찾아오시여 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홍남가스화대상공사와 회천발전소건설공사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와 현대적인 기계들을 창안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특히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홍남가스화대상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해 생산장비가 갖추어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기로 하였으나 2종용도제품이라고 주지 않고 있는 가스흡착에 필요한 설비들과 암모니아합성에 필요한 암죽기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만들어낸으로써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창조력을 다시금 힘 있게 과시하였다.

아버지 장군님께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홍남가스화대상설비생산을 끝낸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암죽기직장, 대형기계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 산 정 청 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부시게 비약하는 주체공업의 위용을 상징하듯 거창하게 일떠선 집새같은 암모니아합성탑, 응축분리탑, 수소정제탑을 비롯한 대형설비들의 우람한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룽성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우리식의 가스화대상 설비들을 홀륭히 만들어낸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가스화대상설비들의 성과적 생산은 룽성의 로동계급이 지닌 자력갱생의 정신력이 넓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불리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하여질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높은 기술을 요하는 가스화대상설비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설비와 기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홀륭히 완성한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성과는 높은 경지에 오른 우리의 과학기술과 주체공업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며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의 정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뿐만 아니라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우리당의 미더운 전위투사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에서 열어갈 불굴의 의지를 안고 충천한 기세로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온 룽성의 로동계급이 당앞에 다진 결의를 빛나게 실천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시 바라는것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을 거듭 높이 평가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편단심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룽성의 영웅적 로동계급은 성능높은 새로운 기계들을 책임없이 만들어내여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 하였을뿐 아니라 오늘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도 개척자, 돌격대의 역할을 홀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우리당의 미더운 전위투사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와 같은 수많은 강위력한 기계공장들의 힘있는 뒤판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나라의 경제력을 급속히 강화 할수 있었

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때 대한 우리당의 독창적인 경제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뿌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의 하나인 룽성기계련합기업소는 우리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 앞으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전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더 많은 기계와 대상설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 룽성로동계급은 전후의 간고한 시련 속에서 맨주먹으로 8m타닝반파 3000t프레스를 만들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계속혁신, 계속진전

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기업소에서 생산장성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하여 무인화를 다그치고 있는 것은 기계제작공업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기술개선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것으로 끊임없이 지향하도록 생산을 조직지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혁명의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적 고조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려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규모비료생산기지의 하나인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홍남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 할 애국의 일념을 안고 비료생산전투를 힘 있게 벌리는 한편 우리 나라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가스화공정건설에서 헌신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가스화공정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기업소로동계급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가스화 1계렬공정의 건축공사를 끝낸 기세로 설비들과 장치물제작 및 조립을 마감고비에서 힘 있게 다그치면서 부분별 시운전을 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하였다.

3면으로 계속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스화공정 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조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드넓은 건설장에 선군조선의 위용떨치며 거창하게 일파선 등장한 구조물들과 침체같은 대형설비들을 보시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주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나라의 만년재부를 마련해가고있는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홍남의로동계급과 건설자, 지원자들의 현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홍남땅에 또 하나의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이 일떠섰을뿐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물릴 시각을 눈앞에 바라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빛나는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홍땅에서 가스화 생산공정이 성과적으로 완공되어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고 동해안의 홍남땅에 가스화공정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는 이 경이적인 전변은 우리가 애써 마련한 강위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의 일대 파시로 되며 당의 결정지시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판철하는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웅적 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위하여 발현으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공정이 완공되면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적인 비료생산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될뿐 아니라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은 나라이 경제발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업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강위력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가장 실り있는 주체비료생산체계를 완성하는데 총력량을 집중하여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비료폭포가 쏟아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업기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는 물론 대상설비를 담당한 기업소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홍남가스화는 우리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공사인것만큼 모든 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감으로

하여 가스화공정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물전해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조해하시였다.

당파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홍남의로동계급은 질안탕과 물전해공정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비료생산을 늘리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것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는 기업소의 전변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전례없는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고 있는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보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과 력관에 넘쳐 충전한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홍남의로동계급이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들을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힘으로 높이 평가하시였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협조를 강화하여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비료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자랑찬 투쟁성과는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천백배로 억새여진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높은 단계에도 끌어올리는데서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식주에서 기본을 이루는 식량문제를 풀자면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홍남으로동계급의 어깨우에 지워져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촌에 여러가지 비료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비료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최신설비들로 장비하기 위한 기술개선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의 요구대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로동자, 기술자들이 우리의 원료자재에 의한 비료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원자를 부단히 낚추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꾸준히 벌린 결과 학비료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진지한 탐구정신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홍남의로동계급은 지난기간 비료로당을 앞장서 받아온 결사판결의 투사답게 사회주의건설에서 무비의 현신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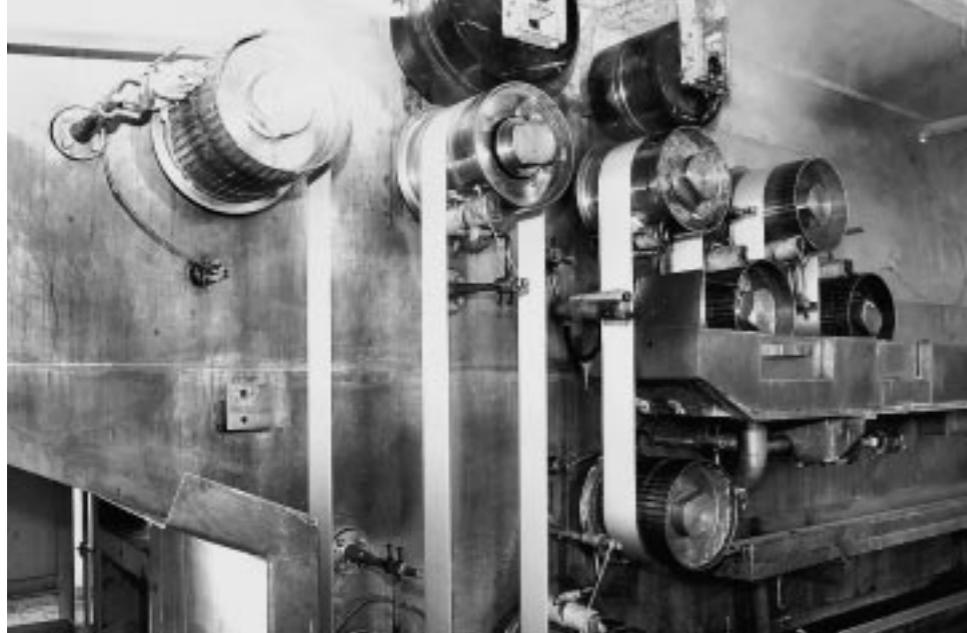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고 하시면서 비료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농업발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흥시는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큰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함흥시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의 대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또다시 시에 찾아오시여 새로운 비약의 활로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기여 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함흥시에 대한 현지지도는 우리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을 안겨주시려고 불철주야의로고를 바쳐가시는 애국애민의 헌신의장정으로서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그나운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소조원들의 가슴은 격정의파도로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초부터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합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범기동지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무대에는 대화시 《사랑의 평가》,

《장군님 마중가신 길》, 너성독창

《아버지장군님 더 잘 모시리》, 가무이야기

《내 나라의 사랑높은 비날론일세》, 선동

이야기 《흥남의 기적소리》, 막간곡 《덟

지 말자》, 혼성 3제창이야기 《곧바로

가자》, 독창이야기와 선동 《반일전가》,

남성독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북

제창 《선군승리 응해야》, 북파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 취주악과 합창

《승리의 길》, 합창시와 합창 《발걸음》,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을 통하여 춤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혁명의 선봉부대로 억세게 자라나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자기들의 행복과 궁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혁명적열정과 전투적인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선군시대에 터여난로동계급의 새문화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비약의 폭풍속에 노도쳐전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이 나래치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끊이번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환호를 울리는 춤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담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예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이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른 모든 종목들에는 혁사적인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더욱 굳건해진령도자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끄떡없이 주체혁명위업을 앞장에서 떠밀어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불변의 신념과 혁명적탁주주의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혁명적군인문화에 바탕을 둔 선군시대로동계급의 고상한 새문화의 본보기로 된다고 말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영웅적로동계급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행로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령도를 충직하게 반들어나가는 혁명의핵심부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믿음직한로동계급이 부강조국건설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서있기에 강성대국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예술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에

로 힘있게 고무주동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위업을 앞장서 반들어나가는 우리의로동계급이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의 돌격대, 선군시대 새문화의 창조자들답게 앞으로도 혁명의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리라는크나큰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깨 서

인 민 생 활 대 고 조 진 군 을 힘 차 게 다 그 치 고 있 는  
함 흥 시 의 중 요 기 업 소 들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께 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인류문화 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여도 진보적인  
류의 가슴속에 더욱더 소중히 자리잡  
는 것 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한없는 그  
리움과 경모의 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활로운 빛발로 세계  
자주화 업을 승리에 이르고 이 고신  
제세의 위인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류자주업에  
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들 가운데에는  
새 사회건설의 길에 떠나선 발전도상  
나라 인민들에게 민족문화발전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신 불멸의 업적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세계정  
치의 원로로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 인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셨습니다.』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힘으로 사회  
적 존재로 키우며 민족의 문명발전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  
략하고 강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  
들은 이 지역 인민들의 자주권을 빼  
았고 막대한 재물을 탈탈히 헤아렸다.  
나라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인민들을  
우주화하는 반동적인 식민지노예화  
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하여 발전도  
상나라 인민들은 현대 문명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결과로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  
라들은 독립 후 새 사회건설에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 부문의 민족간부들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지 못하  
고 있었다. 또한 전문가와 자금의 부  
족 등으로 문학에 술이 발전하지 못하  
고 있으며 문화기관과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세기 후반기 발전도상나라들  
의 실태와 국제관계 흐름을 깊이 통찰  
하는 수령님께서는 아시아, 아

하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화된  
세 세계건설을 필생의 파업으로 삼으  
시고 혁명과 건설을 정도하시는 그  
비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발전도상나  
라 인민들의 민족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과 활동으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을 발표하시여 발전도상  
나라 인민들에게 민족문화건설에서  
번드시 털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을 안겨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작자『뿔뿔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  
치를 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는  
참다운 민족문화발전의 길을 모색  
하면 세계 진보적인 민족에게 밝은 빛  
을 뿐이 준 훈련한 등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 속에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건설  
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따라내려오는 열망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을 깊이 해아리시고 주체  
7 2 (1983)년 9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뿔뿔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문  
의회를 조성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러  
시고는 몸소 회의 참가자를 만나  
주시고『뿔뿔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민  
족문화건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미  
정착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발전도상나라들앞에는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파업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  
문화를 건설하는데 선착적으로  
나서는 가장 중요한 파업은 민족교육  
을 발전시킬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시아, 아

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나  
라들은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전  
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는 홀륭한  
고대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  
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금은 아시아, 아  
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민족  
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적발전의 길에 들어선것만큼 민족문  
화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  
이 열려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배격하는것이  
진보적인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는 대체  
하여 고심도 많아 하고 뿐더불 불가  
피해주시였다.

그의 심중을 깊이 해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와  
함께하시면서 우리 당의 민족문화  
건설정책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  
리가 하는 문화혁명은 다른 나라에  
서 하는 문화혁명과 같지 않다고,  
우리가 내세운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제는 모든 근로자들의 일반지식  
수준과 기술지식수준을 빨리 높이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러시  
면서 그이께서는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수준과 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야  
만나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인  
대군을 키워낼수 있고 사람들을  
하여 제국주의를 없앨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술에서 제  
국주의 반동문화는 인민들의 전진한  
사상과 투쟁의 유통을 마련시키는 정  
신적마약이고 민족문화발전을 품먹는  
유해로운 독소라고 하시면서 발전도  
상나라들은 제국주의 자들의 교활한  
도시민주주의적책동에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  
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발전도상나라 민족문화발  
전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은 교육의 사랑  
화를 제기하고 경제적난판도 무릅  
쓰고 많은 자금을 교육사업에 투입  
으나 무엇부터 어떻게 밀고나갈지,  
어디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지 명  
확한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다보니 사람들 속에서는 이전  
종주국에 대한 환상파와 존심이 의  
연히 국복되거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대주의를 극복  
하며 지식인들을 키우는 사업을 밀  
집히 결합시키는것은 중요한 문제

(1974)년 3월 아프리카대륙  
에서 찾아온 당시의 알제리정부  
수반 후아비 부메디엔을 접견하여  
주시였다. 그로 말하면 나라가 독  
립된 후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해 고심도 많아 하고 뿐더불 불가  
피해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가 알고 싶  
어 하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  
나 일깨워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나른다 아량과 인품, 넓은 심경에  
감동된 부메디엔은 그에게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정답고 맑다고  
거듭 사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귀국한  
그는 그후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옳은 정책을 실  
시하였다.

그는 자체로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교육사업  
에 큰 힘을 넣었다.

결과 6~7년째에서 알제리의 대  
학생수는 무려 4배,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 학생수는 1.2배로 늘어났  
으며 민족문화예술도 몰라보게 발전  
하였다. 이 놀라운 성과를 두고 알  
제리사람들은 훌륭한 민족문화를 건  
설하고 발전시킨 조선의 모범이 멀  
지 않아 되었다고 이구동창으로 이  
야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데에서 그이께서는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수준과 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야  
만나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인  
대군을 키워낼수 있고 사람들을  
하여 사대주의를 없앨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부메디엔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독립 후 알제리에서는 교육의 사랑  
화를 제기하고 경제적난판도 무릅  
쓰고 많은 자금을 교육사업에 투입  
으나 무엇부터 어떻게 밀고나갈지,  
어디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지 명  
확한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다보니 사람들 속에서는 이전  
종주국에 대한 환상파와 존심이 의  
연히 국복되거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대주의를 극복  
하며 지식인들을 키우는 사업을 밀  
집히 결합시키는것은 중요한 문제

로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메디엔에게  
화국의 현실에 경관을 금치 못  
해하면서 절세위인의 선군령  
도가 있어 강성번영의 미래는  
반드시 펼쳐지리라고 확신하  
고 있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을  
주말방가 주위원회 비서는  
김정일각하께서 펼쳐지  
는 선군정치는 조선이  
오늘의 복잡한 환경속  
에서도 자주권과 존  
권을 견결히 수호하고 자  
주적발전과 번영을 이  
록해 나갈수 있게 하는  
하고자 담보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  
까운 앞날에 기어 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  
겠다는 조선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연구원회 위원장은 세  
계 진보적인 민족들은 가